

## 조선대 ‘문화학과’ 신설 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

석·박사과정, 10개 학과 참여

의무이수학점제·실무 교육

조선대학교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에 걸맞은 문화콘텐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선대(총장 서재홍)는 대학원에 올해 신설한 ‘문화학과’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집중 양성한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7년 동안 총 24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관을 앞둔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최대 과제인 콘텐츠산업 전문가(석·박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문화학과’를 신설

했다.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진행된 ‘문화학과’ 신입생(석·박사 22명) 모집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려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설된 문화학과는 문화콘텐츠 관련 10개 학과가 참여해 ‘융·복합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한다.

문화(콘텐츠)사업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의무이수 학점제를 시행하고, 트랙별 전용 Lab실을 설치해 관련 프로젝트 진행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문화콘텐츠)’로 선발된 신입생 22명

에게는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정학금으로 지급하고, 석사과정은 연 720만 원, 박사과정은 연 1200만 원의 연구지원금도 지급한다.

또한, 국내외 문화관련 기관에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관련 컨설팅업체에 위탁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한다.

문화학과 이승권 책임교수(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는 “다른 BK21 플러스 사업에 비해 늦게 선정돼 학과 흥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대 과제인 ‘콘텐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산업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를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학과 신입생 추가모집은 올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062-230-6577).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일상생활 속 과학원리 쉽게...”

조선대-광주시 과학교실 운영... 초등생 350여명 대상



조선대와 광주시가 2014년 1기 광주시 생활과학교실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생활과학교실은 광주지역 초등학생 350여명이 동립동·두암 3동·문흥1동·서창동·수완동·오

치2동·운남동·운암1동·운암3동·첨단1동·첨단2동·풍암동·화정4동 주민센터와 사직도서관, 원광 신협금호지점, 조선대 창의생활과 학교실 등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 8개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생 120여명이 3개월 동안 나눔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연구력·취업률·국제화 향상에 집중한다

### 2014년 동계 보직자 워크숍 3대 중점과제 선정

전남대학교는 최근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지방문총장을 비롯한 차·국·부부장과 각 실·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동계 보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전남대는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생 취업률과 교수 연구력 제고, 국제화 노력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신설한 응집인재교육원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키로 하였으며,

연구력 증진을 위한 논문제재장려금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CNU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국제화 지수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문총장은 “올해는 대학운영의 모든 역량을 연구력과 취업률, 국제화 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예산 편성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독일문화원 어학센터’ 운영 앞서 시범강좌

전남대학교에 문을 연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월 중 무료 시범 강좌를 선보인다. 이 강좌는 수강 예약자들에게 수업 진행 방식을 미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스별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좌를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시범 강좌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A1.2강좌는 21일 오전 11시, 23일 오후 7시에 진행되고, 다음 단계인 A2.2강좌는 29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진행된다.

또 2월 중에는 7주 코스를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초집중 강좌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는 전남대 옛 박물관(중앙도서관 뒤편) 공간을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으며 최근 앙겔라 자네테(Frau Angela Jeannette) 어학협력관이 센터 책임자로 부임했다.

개원식은 3월에 있을 예정이며 이후 정규 어학코스 운영 독일 관련 문화 행사와 출판물 디지털자료 비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현장에서 배운다”

### 동강대, 경찰실습 강의 개설... 경관이 직접 평가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우) 경찰경호학부(학과장 나현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현장 실습 위주의 경찰 업무를 경험하는 ‘경찰 실습’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동강대는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2014학년도부터 경찰경호학부의 정규교과로 경찰 실습 과목을 편성하고, 시범 운영된다. 강의에 대한 평가는 점수를 따로 매기지 않고 현직 경찰관이 통과 여부만 가리는 이수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경찰 실습 과목이 개설되기는 최초이며, 동강대와 함께 경기도 용인대·충남 백석대학교 등 전국 세 곳이 선정됐다.

수강생들은 사건·사고현장 뿐만 아니라 교통과 방범순찰 등에 현직 경찰관들과 함께 동행 실습하며, 학교전담 경찰관(스쿨 폴리스) 지원 등을 통해 경찰 업무를 체험한다.

또 현장 실습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측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입각된 학교 책임보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방침이다.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학점은 일선 경찰서 과장(경정)급 이상 간부가 직접 부여한다. 다만 100분위 점수를 매기지 않고 이수(통과) 여부만 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리버밸리 국제학교, 2014년도 신입생 모집

### “외국유학 대신 곡성으로 오세요”

#### 국내인 대상 기숙형 학교

수학, 음악, 미술, 과학 등의 수업이 병행된다.

개인별 평가관리는 물론 자기 주도형 학습을 진행해 학생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30여년간 생활하다 리버밸리 국제학교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조이스 킴씨는 “리버밸리 국제학교는 조기유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인 대상 국제학교”라며 “정정 강빛마을에 들어선 독일형 스타일의 학교캠퍼스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 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학생 모집 정원은 60명이며, 접수기간은 2월 20일까지다. 문의는 061-363-050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오피스텔” 매매

1. 수기동 제일 OP 13층 53평
2. 창가, 코너, 전망 좋음
3. 주거겸 사무실, 전체 올수리
4. 시세/분양가 – 2억 5천만원 정도
5. 매매가 – 1억 5500만원

##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 20% 보장  
투자금 1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